

호남대 펜싱 남자사브르 개인·단체전 '금빛 찌르기'

전국대학선수권 박정호 2관왕
여자사브르 이승주 개인전 3위
남자 에페 한정민도 동메달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펜싱부가 전국남녀 대학펜싱선수권 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단체전을 석권했다.
16일 호남대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41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남녀대학펜싱선수권대회에서 호남대 선수들이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사브르 단체전 1위에 올랐다.
여자부 사브르 개인전과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각각 3위에 입상했다.
박정호·박성범·유수근·주진현이 조를 이룬 남자 사브르 단체는 4강전에서 호원대를 꺾고 결승에 올라 한국체대를 45-42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박정호(스포츠헌리학과 3년)는 남자사브르 개인 4강전에서 이도훈(한국체대)을 15-14로 따돌렸다. 이어 결승전에서 김재원(대전대)을 15-11로 몰리치고 우승했다.
이승주(스포츠헌리학과 4년)는 여자 사브르 개인 8강전에서 박다은(동의대)을 15-1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같은 대학 장지원에 13-15로 패해 3위에 올랐다.
한정민(스포츠헌리학과 1년)도 남자 에페 개인 8강전에서 권상우(한국체대)에 15-12로 승리해 4강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 김정범(대전대)에 12-15로 무릎을 꿇어 3위에 머물렀다.
김병진 감독은 "올해 5월초 학교측의 배려로 다녀온 해외전지훈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귀국후 곧바로 대회에 출전하는 바람에 피로감이 클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선수들이 고른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6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전국남녀대학펜싱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호남대학교 펜싱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태극마크 다시 단 '태권스타' 이대훈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

2021년 현역에서 물러난 '태권도 스타' 이대훈(31)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선수가 아니라 코치로다.
이대훈 코치는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결단식에서 대표팀 코치 선임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대훈 코치는 "선수 은퇴 후 학업에 전념하다가 지난 3월 대전시청 코치직을 맡게 됐고, 최근 대표팀 코치 제안을 받았다"며 "지도자로 태극마크를 단 건 처음인데,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훈 코치는 오는 25일 대표팀 후발대와 함께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떠날 예정이며 대회 현장에서 소속 팀 선수인 남자 63kg급 김태용(대전시청)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대훈 코치는 한성고 재학시절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11년 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한, 태권도 중추국 우리나라의 간판선수였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 번이나 우승했고, 아시안게임 태권도 사상 첫 3연패도 달성했다.
올림픽에도 3회 연속 출전했다. 남자 58kg급에 나선 2012년 런던 대회에서는 은메달, 체급을 올려 68kg급에서 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수확했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 이 코치는 은퇴 후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각종 태권도 홍보 활동에 앞장섰다. 최근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국내 우승' 기세 탄 임성재, PGA 메이저 챔피언 도전

남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이 1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파70·7394야드)에서 열린다.
4월 마스터스에 이어 또 한 명의 '메이저 챔피언'을 배출하게 될 이번 대회에는 156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대회 총상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총상금 1500만 달러, 우승 상금 270만 달러(약 36억1000만원)였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최근 발목 수술을 받아 불참하는 가운데 역시 세계 랭킹 1~3위인 '빅3' 람과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만일 람이 우승하면 2021년 US오픈과 올해 마스터스에 이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 대회 정상

PGA챔피언십 18일 개막
김시우·김주형·양용은 등 출전
에 세계 된다. 또 올해 열린 2개의 메이저 대회도 석권할 수 있다.
마스터스에서 컷 탈락했던 매킬로이는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 대회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저스틴 토머스(미국) 역시 2017년을 포함해 PGA 챔피언십 3회 우승을 노린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이 대회에서만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LIV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한 미겔손은 2021년

이 대회에서 사상 최초의 '50대 메이저 챔피언' 신화를 썼다.
또 캄카도 2018년과 2019년에 PGA 챔피언십을 2연패 했다.
최근 5년 사이에 PGA 챔피언십 우승 횟수는 LIV 선수가 3회로 2020년 폴린 모리카와(미국), 2022년 토머스 두 번인 PGA 투어를 앞섰다.
한국 선수들도 2009년 이 대회 양용은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에 도전한다.
임성재가 14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챔피언십에서 5타 차 역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분 좋게 미국으로 떠났고, 김시우 역시 지난주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준우승한 상승세가 매섭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시우 외에 김주형, 이경훈, 양용은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지난14일 열린 2023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성재. /연합뉴스

이것이 세팍타크로...온몸을 던져 쏜다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게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세팍타크로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선수가 온몸을 던지며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대표팀 출사표 "네이션스리그 설욕 다짐"

지난해 12전 전패...공개훈련 갖고 의지 다져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설욕을 다짐했다.
대표팀은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한유미 코치와 김연경 어드바이저(고문)의 지도하에 공개훈련을 가졌다.
튀르키예 바키프방크 코치를 겸하는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대표팀 감독은 리그 일정 때문에 VNL 첫 경기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합류한다.
한유미 코치는 공개훈련에 앞서 "작년보다는 발전하고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개인적으로는 주차마다 1승씩 거뒀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12전 전패로 승점을 하나도 얻지 못했던 지난해 대회의 수모를 설욕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대표팀은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김연경, 양효진, 김수지 등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끝에 국제대회에서 1승 16패(VNL 12패·세계선수권 1승 4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랭킹은 14위에서 현재 23위로 추락했다.
한 코치는 "올해 VNL을 시작으로 아시아선수권, 파리올림픽 예선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다"며 "대회 주차가 넘어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테랑 선수들이 빠지면서 생긴 전력 약화는 탈라진 팀 컬러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VNL은 이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튀르키예, 브라질, 한국, 일본, 홍콩, 태국에서 총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어드바이저를 맡은 김연경이 16일 오후 진천선수촌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
| 2관 |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울지마 엄마 |
| 3관 |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
| 4관 |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 5관 | 울지마 엄마 |
| 6관 |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슬픔의 심각형 |
| 9관 |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틀수비대 |
| 7관 | 세네카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 8관 | 세네카를 스즈메의 문단속, 존 워 4, 스트리머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오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즐거움
문화산책